

## 목차

### 독서의 위안

- 머리말
-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 정승열 靜勝熱
-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 데카르트 / 스피노자
- 칸트
- 쇼펜하우어 / 니체
- 공자
- 목자
- 노자
- 맹자
- 순자
- 독서의 효용성

### 에세이

- 진리에 대해서
- 죽음에 대해서
- 돈에 대해서
- 에로티시즘에 대해서
- 문화에 대해서
- 이순신에 대해서



## 노자

老子

노자는 기원전 500년경의 인물로 도가 道家의 창시자이다. 노자는 도 道와 덕 德에 대해 말했다. 따라서 그가 지은 텍스트를 <노자 도덕경 老子道德經>이라 한다.

노자가 말하는 '도'란, 플라톤의 이데아, 스피노자의 실체 實體, 칸트의 물자체 物自體와 유사한 개념이거나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자가 생각하는 '도'는 이런 것이다.

“태초의 혼돈 속에서 생겨나, 하늘과 땅보다도 앞서 존재하는 것이 있다. 고요하고 텅 빈 채, 천지만물로부터 독립해 홀로서만 영원불멸하며, 두루 세상에 작용하면서도 그치는 법이 없으니, 가히 천하의 모체 樞라 할 만하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나, 굳이 자 字를 붙여 도 道라 명명했다.”

플라톤의 최대 업적이 '이데아'라고 하는 보편 개념을 창안한 데 있었다면, 노자의 최대 업적은 '도 道'라고 하는 보편 개념을 제시한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독서의 위안> 본문 중에서

에스24  
인문베스트  
Top 100  
30주 선정



지은이 송호성 판형 152×225 값 14,000원

화인북스 Tel.032-819-2747